

* 진흥회 동정

제4기 수출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11월21일부터 11월23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소재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 「제4기 전기산업 수출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내수위주의 중전기산업을 수출산업화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우수 인력 양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출행정 습득 기회 제공, 수출시장 개척마인드 제공으로 수출분위기 확산, 수출전문가가 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하우 습득, 중소기업의 수출전문가 양성, 회사사 무역담당 실무자들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 전기산업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에서 수출을 전담하는 전문인력들이 참가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의 내용은 ▲해외마케팅 전략 및

세일즈기법(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염홍기 교수) ▲중전기 수출경험사례 발표(디이시스(주) 이해진 상무) ▲2002년도 국내 산업전망 및 세계경제동향(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박사) ▲국별·지역별 상거래 관습의 이해(광운대학교 손태빈 교수) ▲21세기를 향한 전기인의 자세(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 ▲한국상품의 현주소와 거래선 발굴(한국무역협회 최용민 박사) 등의 강의와 전기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전기산업 무역인의 밤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증 수여 및 기념촬영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문의: 통상전시팀)

제6차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용자대상사업자 선정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001년도 제6차 자금지원대상 용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해당사업자에게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개발과제는 ▲일진전기공업(주) 345KV XLPE 절연 전력케이블용 부속재 개발 ▲중앙전자통신(주) 조도조절이 가능한 DIMMING 전자식 안정기 ▲(주)알토 옥외 조명기구의 기능성

개선 및 효율성 증대 등 3개 과제로서 30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들 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최종 확정절차를 거쳐 용자금리 연 5.0%, 용자기간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지원은 올해 배정금액인 60억원을 3차에 걸쳐 업체에 전액 지원하고 타 분야의 잔액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산업 분야의 활발한 개발열기를 실

감하게 하며, 진흥회에서는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정부에 전기산업분야

배정규모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의: 기술진흥팀)

전기연구원 공동 동남아 3개국과 상호협력방안 협의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12월 1일부터 12월9일까지 7박9일의 일정으로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도 3개국과의 전력기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 전기연구원 권영한 원장, 김요희 소장, 이기택 선임기술원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12월1일 출국하였다.

방문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전기시험 관련 인력 교류 활성화 ▲정보 및 기술교류 ▲공동시험, 연구

개발 ▲시험설비 활용 유도 ▲공인시험기관 인정 등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와 ▲상대국과의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상호양해각서)체결 ▲중전기 제품 시장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전략 마련 등이다.

각 국의 주요 방문기관은 베트남 STAMEQ(국가 표준관리 및 품질검사소), 캄보디아 EDC(Electricite du Cambodge, 국영전력회사), 인도네시아 (PT.PLN, 연방전력회사)이다.

2001 인도네시아 전기박람회 참가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상원전기, 유성계전 등 국내 중전기 11개사와 함께 11월7일부터 10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ELECTRIC INDONESIA 2001"에 참가, 「한국전기산업관」을 운영한 결과 현지는 물론 주변국가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에이전트계약, 수출계약 등 성과도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진흥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동남아 시장공략의 마지막 프로젝트로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미개발되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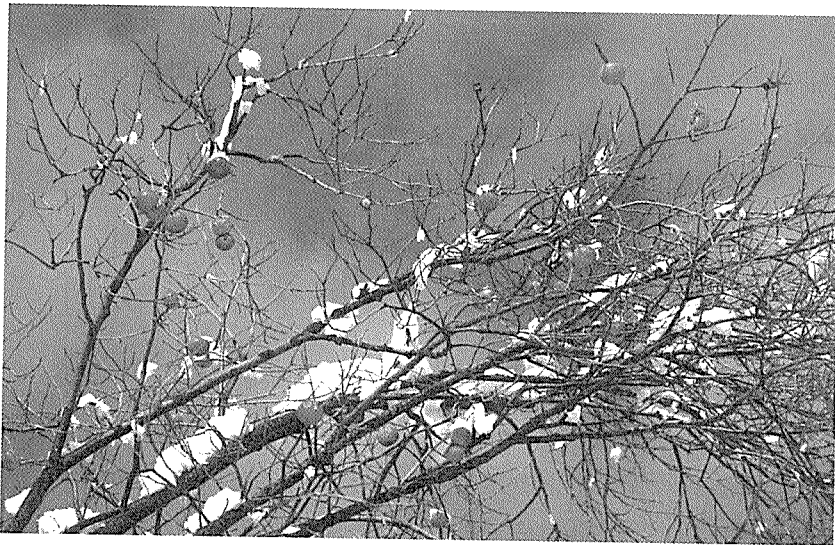
큰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및 기존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이로서 진흥회에서는 2000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국내업체 진출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은 ▲상원전기(차단기류) ▲유성계전(전력보호시스템) ▲남성기업사(부스바 가공기) ▲만강전자(디지털계측기) ▲보국전기공업(발전기) ▲씨피시스템(케이블체인) ▲크로스티이씨(UPS) ▲대림전자(부품용변압기) ▲피앤씨테

크(RTU) ▲삼화기연(모터보호계전기) ▲신영중전
기(변압기) 등이며, 진흥회는 한국관을 통해 국내
중전기 제품 우수성을 알리고 2002년 서울국

제종합전기기기전(2002.11.4-11.7)의 홍보를 하
였다.

(문의: 통상전시팀)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